

NOROO

NOROO

Winter. 2017



Winter. 2017

보호하고,
보호받다。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7년 겨울 45호

NOROO

Color and Protect

가장 아름다운 코팅이자
가장 견고한 보호막으로서
고객과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NOROO는 늘 기술 개발에 임장하고 있습니다.



Special Theme

보호하고, 보호받다

04 New Year's Message 노마드 NOROO! 시장선도로 기회를!

08 Essay 보호자의 잠재력

10 Information 지구를 지키는 수퍼맨

14 Interview 더 강하고 더 아름답도록 코일에 코팅을 더하다
(주)노루코일코팅 기술4팀

Culture Gallery

18 Goods 가계부 채우고 잔고도 높이고

20 Taste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

22 Travel 여행이라 좋고 혼자라서 좋다

NOROO People

26 Focus on NOROO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2018

30 Social Contribution NOROO와 POW!WOW! 서울을 새로이 그리다
POW!WOW! X NOROO in Korea

34 High Five 기술을 배우다, 우리를 느끼다
(주)노루비케미칼 해외직원연수 프로그램

38 Family Time 딸기처럼 새콤하게, 크림처럼 달콤하게
(주)노루알앤씨 김홍규 가족의 새콤달콤 딸기 타르트

42 Special Store 양양에는 무지개 요정이 산다
양양 두리상사

News Briefing

50 1 Minute Guide 찬 바람 속 피부 지키기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경영지원팀 조용걸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대공빌딩 13층
T:02-2191-9651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주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33

(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13
T:031-599-7276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한선용 주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0

(주)노루코일코팅 경영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486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

칼라메이트(주) 지원팀 유은아 주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노마드 NOROO! 시장선도로 기회를!

노루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청년 NOROO, 시장선도로 기회를’이라는 그룹 경영지표를 기반으로 청년 노루의 패기와 열정, 박력, 책임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화학 부문은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전략적 영업 확대로 선도적, 차별적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농생명 부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농생명 연구 클러스터로써 농생명 기술의 집약체인 더 기반 안성 연구단지를 건립하여 사업기반 구축과 함께 사업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임직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땀의 결실로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세계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 테마를 위주로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나,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경영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노루인의 자세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고와 역동성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가고, 해외에서도 신규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어 현재보다 한 차원 높은 전략적 국면의 전환을 꾀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그룹의 경영지표를 “노마드 NOROO! 시장선도로 기회를!”로 제정합니다. 이는 악화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의 저

변에는 폭넓은 사고력과 고도의 전술이 담겨 있습니다. 종전의 경영방식과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하여야만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사업 부문에서는 첫째, 노마드식 사고를 지향하여 이미 확보된 업계 선도 자격을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 감으로써 빠른 전략적 위치를 굳혀야겠으며, 둘째, 이의 기반이 되는 유연한 조직 효율화에도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농생명사업 부문에서는 첫째, 해외 프로젝트의 조기 사업화와 함께 안정된 수익원을 발굴해 내며, 둘째, 종자사업의 기반을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손익분기점 조기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그룹 차원에서도 그룹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도 정비 및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미래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그룹사간 시너지 제고와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지속 발굴을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힘찬 행진을 계속합시다.

마지막으로 진일보적인 노사문화 창조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루페인트 위원장과 여러 계열사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1월 2일

회장 **한영재**

보호하고, 보호받다

보호라는 행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만듭니다. 둘은 서로 반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상호적입니다. 보호를 받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보호하면서 더 튼튼해지니까요. 강철에 입힌 코팅이 강철을 녹슬지 않게 돋고, 강철은 코팅에게 꿈쩍 않는 바탕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호는 보호하는 이나 보호받는 이에게 모두 지지대가 됩니다.

Essay	보호자의 잠재력	08
Information	지구를 지키는 수퍼맨	10
Interview	더 강하고 더 아름답도록 코일에 코팅을 더하다	14



보호자의 잠재력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과 연말 약속을 잡기 위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쌍둥이 아이들을 돌봐야하고 있어 당분간은 시간 내기가 어렵겠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아이들이 밤마다 엄마 옆에서 자겠다고 싸우는데 때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일주일 동안의 엄마 옆자리 차례까지 정해 놓는다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과 애정의 요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힘에 부치는 친구의 복잡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주변 어른들과 선배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

다. 그것도 다 한때라고, 그러면서 커간다고, 지나고 나면 그리워질 것이라고들 했지요. 그때는 몰랐던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알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시간과 체력을 내어주며 누군가를 보호하고 보살피던 행위가 나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었음을,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았고 덕분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한없이 지루했던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다는 것을요.

식물의 탄생과 성장을 연구하며 인생을 통찰한 미국의 과학자

호프 자런은 아들을 낳은 후에『랩 걸,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가 자라는 것을 보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내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말로 기쁨으로 거두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나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떤 존재를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는 위치가 되면서 저는 제 생애 가장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심신이 건강해야 하더군요. 세심해야 하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공부하고 깨우치고 성장해야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최대한 길어 올려 어린 나무들에게 공급해 주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애정과 보호만 받고 있을 때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성품이 보호자가 되면서 형성됩니다. 풋풋했던 시절 제 곁에는 함께 길을 걷다 매우 중요한 의무를 잊고 있었다는 듯 ‘맞다!’ 하면서 얼른 자신이 찾길 쪽에 서고 한 팔로 저를 감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건 참 아득한 위로였고 안심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걸을 때 제가 얼른 찾길 쪽에 서고 주변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살핍니다. 야생동물처럼 기민해지고 용맹해진 저의 새로운 모습이 싫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면서 발달한 감각과 생성된 에너지는 저를 다른 장소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마음의 우물이 생각보다 넉넉히 차 있음을 알게 되자 이기심 대신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한 존재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호자가 되어보면 행동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고양이를 키워본 이라면 추운 겨울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는 길 고양이를 위해 물그릇을 놓아줄 것이고, 죽어가는 화초를 정성껏 가꾸어 본 사람이라면 식물원의 희귀종이나 보호수 앞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국립 야생 동물보호구역에 생후 6개월 만에 어미를 잃은 텔바란 코끼리가 있습니다. 텔바를 돌봐줄 다른 암

컷 코끼리가 나타나지 않자 관리인은 어쩔 수 없이 앨버트라는 양에게 텔바를 맡겼습니다. 둘은 어색해하다가 점차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며 친밀하게 지냅니다. 앤타깝게도 텔바는 2년 후에 세상을 뜨지만 앨버트는 이후에도 어미를 잃은 얼룩말 새끼와 누의 새끼에게 엄마 역할을 합니다. 코끼리 텔바와 나눈 모성애를 다른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양은 돼지 다음으로 지능이 높고 정이 많은 동물로 한 번 친해진 동물의 얼굴을 잊지 않고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성이 관계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난 것이지요.

어느덧 중학생이 된 제 아이는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나오질 않고, 외출하면 연락도 통 없어 저는 비어버린 듯한 손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아이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 언젠가 제 그늘을 떠나겠지만 아이가 제 안에 심어준 힘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잠재력이라고 하면 재능이나 성취를 먼저 떠올리지요. 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켜온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잠재력인 ‘보호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작은 씨에 불과했던 사랑의 잠재력은 한 생명을 책임지면서 꽃으로 피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시들어가는 제라늄일 수도 있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일 수도 있고, 늙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춥고 아프고 가난한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빈 손에 깃든 이 작은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특권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 노지양

영문학을 전공하고 KBS와 EBS에서 라디오 방송작가로 일하다가 출판 번역가로 활동하며『나쁜 페미니스트』,『마음에게 말걸기』 등 70여 권의 다양한 책을 번역했습니다.
twitter@villette420

지구를 지키는 수퍼맨

무엇인지를 보호하고 지킨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지키고 보호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지요. 자연을 보호하고, 내 신체를 보호하고, 주변인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작은 보호 활동이 하나하나 모여 나와 가족, 회사와 사회, 국가와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광고에서 꼬마가 회사에서 일하는 아빠를 수퍼맨이라고 자랑스레 말하듯, 작은 것부터 지켜내는 우리는 모두 수퍼맨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다

어린 시절, '보호'라는 단어를 처음 본 것은 공원의 잔디밭에 꽂혀 있던 '잔디 보호'라는 팻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팻말도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눈에 띄었죠. 무심코 지나치던 이 문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과 자연의 상호 관계를 참 정직하게 나타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이 존재하기에 살아갈 수 있는데, 자연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니까요.

자연보호를 구호로 외치게 된 것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연 파괴가 심화되던 1970년대부터이지만 자연보호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부터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농천하지대본(農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사를 천하의 큰 근본으로 삼던 우리 조상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비를 내려주는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었지요. 약 1,000여 년 전 삼국시대 때부터

왕실은 자연보호를 위해 각종 금령(禁令)을 시행했고 민간에서도 자연보호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았지만 각종 인공 기술이 발달하며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다 못해 착취하기도 했죠. 석유를 뽑아내 대기를 오염시키고 영영 썩지 않을 쓰레기를 만드는가 하면 각종 용수를 끌어올려 폐수로 버리고 사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자파로 인한 꿀벌의 실종은 또 어떤가요.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란 표어가 나온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전 방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고 전기자동차가 달립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인간을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깨달은 인간의 필사적 자구책이 공존과 공생을 만들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신체를 보호하다

수퍼맨의 타이즈와 삼각팬티, 배트맨의 배트 수트, 아이언맨의 철갑 수트처럼 일상 속 히어로인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각종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크림과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마스크에서부터 현장의 각종 위험 요소에 대비시켜 주는 헬멧과 방진마스크, 작업화 등이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과거의 보호장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갑옷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쟁 때 창검과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갑옷은 처음에는 가죽 등을 이용하다가 점차 재료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고구려는 철로 갑옷을 아주 잘 만들었고, 말에게도 갑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하지요. 문헌 기록에 당나라 태종이 백제에 사람을 보내어 오색이 짙고 금빛이 찬란한 금칠도

철갑을 구해다 입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하니, 백제의 뛰어난 제작 기술을 짐작해 볼 따름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금속 또는 가죽 조각을 끈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이러한 갑옷은 무게가 상당하여 웬만한 신체적 훈련이 동반되지 않은 이는 착용 후 거동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극에 출연했던 한 연기자는 무게가 20kg에 달하는 갑옷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하지요. 그러한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러낸 장군들은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을까요. 가볍고 편리한 현재의 보호장구들 덕에 우리의 신체는 편하고 자유로우며 안전합니다. 그러나 자칫 위험에 대비하는 마음까지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정보를 보호하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 중에는 '정보'도 있습니다. 컴퓨터로 여러 정보를 생산하고 주고받는 요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보안 이슈이기도 하지요. 이를 위해 우리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공인인증서를 띠우고, 뭔지도 모를 보안 프로그램을 자꾸만 깔아 놓습니다. 과거에도 정보 보호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암호를 사용했는데요, 암호 기술은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암호를 현대 암호, 그 이전의 무선통신 기술에 의한 기계적·전자적 암호를 근대 암호, 과거의 초보적 암호 기술을 고대 암호라고 하지요.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우스 시저는 알파벳의 위치를 규칙적으로 이동하여 쓰는 이동 암호문을 사용해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암살 당하던 그날, '암살자를 주의하라'는 암호문을 받은 그는 그러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브루투스에게 살해되며 "부루투스, 너마

저..."라는 말을 남겼지요. 그가 사용하던 이동 암호는 현재 '시저 암호'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암호는 뜻밖의 기술 발전을 낳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루며 세계 각국은 안전한 암호를 만들고, 또 풀기 위해 노력했지요. 독일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커다란 타자기처럼 생긴 에니그마를 사용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전달된 문서는 다시 에니그마에 넣고 다이얼과 배선을 조작해야만 해독되었죠. 영국군은 이 암호를 풀기 위해 수학자와 전산학자를 모아 암호 해독팀을 꾸렸고, 그들의 오랜 노력 끝에 연합군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앤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만든 암호 해독기는 전자 컴퓨터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고, 앤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 상도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제품을 보호하다

알고 보면 세상에는 보호하거나, 보호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품은 일단 보호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에어캡으로 싸고, 상자에 담기고, 테이핑을 해서 택배가 오고 갑니다. 화장품은 파우치에 담기고, 세탁된 옷은 비닐에 싸여지죠. 노트북은 가방이 지켜주고, 지갑은 돈을 구겨지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은 또 어떤가요. 액정 화면에는 강화유리 필름을 붙이고 본체에는 두툼한 케이스를 입혀 충격을 방지합니다.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 가격이 거의 100만 원대에 이르니 이렇게 과보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100% 완전한 보호는 어렵기에 보험에 들기도 하지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제품 보호 외에 숨은 보호 능력들도 있습니다. 페인트도 그중 하나지요. 페인팅은 시

각적으로 먼저 인지되기에 그 보호 능력이 간과되곤 하지만 표면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 페인트는 물이 스며들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고, 방염 페인트는 불에 탄는 속도를 늦춰주죠. 녹을 막아 건물이나 기계를 부식으로부터 지키는 페인트, 열을 차단하여 건물을 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 에너지세이브 페인트, 곰팡이와 세균을 막아주는 항균 페인트, 크린룸을 위해 정전기를 방지하는 대전방지용 페인트도 있습니다. 이러한 페인트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과 사용하는 제품들, 여러 이동수단 등을 코팅하여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품이 보호되고, 또 우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든든합니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답도록 코일에 코팅을 더하다

(주)노루코일코팅 기술4팀

잠시 주변을 둘러볼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1분 안에 5가지 이상의 철판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TV와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전자렌지, 건축물 내외장재, 엘리베이터와 방화문 등 철판은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철로 만들어졌음을 간혹 잊곤 합니다. 철판에 색과 기능을 입히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노루코일코팅은 바로 그러한 코팅 도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철판을 보호하는 코일코팅

“1971년 (주)노루코일코팅은 코일코팅용 도료를 국내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PCM(Pre Coated Metal)은 도료를 강판, 즉 철판에 먼저 도장하여 성형 조립 등의 가공 공정을 거치면 바로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고안한 도장 시스템입니다.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일정하며 공정 시간이 단축되는 강점이 있지요. 도장된 강판은 기능성을 갖기도 하고 내식성과 내후성을 확보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축용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철판에 코팅이 없다면 녹이 잘 슬고 구멍이 생겨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죠. 코팅이 없다면 가전제품의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판을 보호하고 더욱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코일코팅 도료 기술 덕분이죠.” (주)노루코일코팅 기술4팀 서정욱 부장의 설명입니다. (주)노루코일코팅은 걸러 도료뿐만 아니라 대리석이나 나무 무늬를 표현하는 프린트 잉크, 부드러움과 주름진 느낌까지 내는 의장성·기능성 도료, 그리고 신소재 가전용 도료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코일코팅에 대한 AS가 굉장히 빠른 데다가 토탈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동국제강, 동부인천스틸, 현대제철, 포스코 C&C 등에 하도와 상도, 프린트 도료까지 공





급하고 있지요. 가전업체 세계 1위인 중국의 하이얼도 (주)노루코일코팅의 기술력을 원하여 현재 도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4팀은 글로벌 시장인 하이얼에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패턴을 개발하며 고선영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가올 코일코팅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UV 도료와 수성 도료를 개발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필름 접착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제품 개발 업무를 맡은 곳이 바로 서정욱 부장과 박종태 과장, 김철희 과장이 속한 기술4팀입니다. 이들의 기술 개발은 코일코팅 시장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요.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주)노루코일코팅

코팅은 철판도 보호하지만 사용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주)노루코일코팅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제품의 개발에 앞장섰습니다. “과거 2006년도부터 가전용 제품에 무독성 도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용제를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건조시키는 UV 도료는 유기용제가 없는 친환경 도료라 가전용 제품의 고급화를 돋구지요. 현재 박종태 과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성 도료도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고요. 또한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가 인명 피해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불연 도료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이어간 서정욱 부장은 “하원수 기술 부문 임원께서 열정적으로 제품 개발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팀원들도 목표에 대한 열의가 매우 뜨겁고요.”라고 말하며 고생하는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종태 과장, 김철희 과장도 힘든 개발 과정을 함께하고 성취감을 공유하는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탰지요.

“늘 변한다는 것은 변함없지만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지금, 저희는 그 속도를 앞서가야 하겠지요.” 서정욱 부장의 각오에는 (주)노루코일코팅에 대한 자부심이 은근히 드러나 있습니다. 코팅이 코일을 강하게 만들듯 기술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주)노루코일코팅 기술4팀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욱 뛰어난 제품으로 안전한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겠지요.



CULTURE GALLERY

해가 맑아 생각도 맑아지고
밤이 길어 사색도 깊어지는
겨울이라 좋습니다.
따뜻한 스프와 혼자만의 여행이
어느 계절보다 어울리는
겨울이라 참 좋습니다.

가계부 채우고 잔고도 높이고

'새해'라는 단어와 패키지처럼 묶이는 단어들이 있다. 목표, 다짐, 각오, 이번만은 등등. 이러한 단어들은 금연, 영어공부, 운동 등과 세트가 되곤 하는데 가계부 쓰기도 그중 하나다. 매해 결심하지만 앞쪽만 손때가 묻다가 연말엔 깨끗이 빙 페이지들과 함께 통장도 텅 빙 것을 보면 결국 마음도 비어가기 마련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해가 또 밝는다는 것. 다시 다짐해 보자. 올해는 꼭 가계부를 채워보겠다고. 이번 연말에는 가계부와 함께 채워진 잔고에 "그레잇"을 외쳐보자.



MY MONEY MINDER VER.8 – 모노폴리

하루를 마감하는 밤, 가계부를 펴고, 오늘 쓴 영수증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손으로 적어 보자. 하루의 소비를 돌아보는 습관은 지갑을 단단히 여미게 한다. 그래서 이 클래식한 가계부의 이름은 MY MONEY MINDER다. 문구 브랜드 모노폴리의 스테디셀러 가계부인 MY MONEY MINDER VER.8의 표지는 부드러운 가죽이라 자꾸만 손이 간다. 내부에는 다양한 포켓이 꼼꼼하게 구비되어 있어 영수증과 통장, 보안카드를 수납할 수 있다. 속지는 연간 계획과 자산 목표, 월간 계획 및 예상 지출 목록, 결제 및 출금일, 카드 목록과 보험 관리, 대출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차곡차곡 적어가다 보면 자금 관리 방향이 명확히 잡힌다. 무엇보다 손에 잡하는 두께감이 내 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가계부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해 주는 완벽한 가계부가 MY MONEY MINDER VER.8다.



아낌 생활비 달력 – 아낌

책상에 앉아 이것저것 쓸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는 더 귀찮다. 하지만 계획 밖으로 자꾸만 새나가는 지출을 잡고 싶다면 생활비 달력이 답이다. 한달 동안 쓸 돈을 아예 현금으로 바꿔 달력에 꽂아두는 것이다. 돈을 꺼내 쓰고 영수증을 넣으면 그날의 결산은 끝난다. 그러나 생활비 달력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출은 늘 계획을 넘어서기 마련이니 자꾸 내일의 돈을 꺼내게 되어 월말이 되면 달력은 잔고가 빈 채 영수증만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 현실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 생활비 달력의 힘이다. 결국 어떤 수를 써서든 지출을 줄이게 된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똑똑가계부, 편한가계부 – 어플리케이션

가계부를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빼놓을 수 없다. 수기 가계부보다 스마트폰의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이 더 익숙한 시대다. 문자로 오는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고, 계산도 알아서 해주니 편리하지만 돈의 들고남에 무감각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늘 체크하고 목표를 설정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구글플레이마켓에서 다운로드 수 1위, 평점 1위를 기록한 <똑똑가계부>는 한달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누적되는 지출을 계산해 오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훌륭한 기능이 있다. 아이폰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편한가계부>는 출시된 지 벌써 6년이 넘어가는 장수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의 요구를 꾸준히 반영하며 업데이트하다 보니 편의성과 기능이 충실히 경제 유료 어플리케이션 부문에서도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2018 한눈에가계부 – 솜씨

정통 가계부 쓰기가 버거운 가계부 초보자라면, 매년 가계부를 사지만 제대로 다 써 본 적이 없다면, 일반 가계부를 쓰고 있지만 매번 끄내는 게 불편해 손이 안 간다면 이 가계부를 추천한다. 책상형 달력처럼 세워둘 수도, 책꽂이에 꽂을 수도 있는 <2018 한눈에가계부>는 페이지 위쪽에 이달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아래쪽에 매일의 실제 소비를 기록해 한눈에 한 달의 소비 규모를 파악하게 한다. 달력이라 시시때때로 보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소비를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게 이 가계부의 장점. 무엇보다 항목이 최소화되어 있어 간단히 적을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쓰기 쉽다. 2018년 가계부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볍게 해 줄 가계부다.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

동화 〈곰 세 마리와 골디락〉에서 금발 머리 소녀는 숲 속을 헤매다 우연히 들어선 곰 가족네 집에서 식탁에 놓인 수프를 발견한다. 투박한 나무 숟가락을 얹은 따뜻한 수프는 소녀의 몸과 마음을 녹여 낯선 집에서도 스르릉 잠이 들게 한다. 곰 가족의 수프는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을 달래주는 소울 푸드였다. 추운 겨울, 동화 속 소녀처럼 수프 한 그릇에 몸과 마음을 녹여 보자.

*자료 제공_『수프 교과서』



『수프 교과서』(사카타 아키코 지음 / 조수연 옮김 / 한스미디어)

프랑스 요리와 제빵 경험이 풍부한 요리 연구가 사카타 아키코의 「수프 교과서」는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영양만점의 수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프로의 맛을 내는 5가지 기본 수프 스틱 방법과 수프에 고기와 채소의 김칠맛을 끌어내는 요령, 수프와 잘 어울리는 토핑과 빵 등 수프에 필요한 모든 게 담겨 있다.



그릇을 씩씩 굽게 하는

고구마 사과 포타주

일반적으로 맑은 수프를 콩소메라고 하고, 재료를 갈거나 으깨 걸쭉한 수프를 포타주라고 한다. 고구마 사과 포타주는 달콤한 고구마와 새콤한 사과가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낸다. 여기에 시나몬 향까지 더해져 겨울에 잘 어울리는 수프가 되었다.

재료(2~3인분)

고구마 1개(250g), 사과(홍옥) 1개, 우유 1컵, 생크림 1/4컵, 장식용 사과 1/2개, 시나몬 가루 적당량, 채소 수프 스틱 2컵, 버터와 소금

1. 고구마는 껍질을 벗겨 1cm 두께로 둘째로 둘째로 썬다. 사과는 껍질을 깎아 얇게 반달썰기한다. 두 재료와 버터 40g, 채소 수프 스틱 1컵을 넣은 다음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고구마와 사과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20분간 끓근히 끓인다.
2. 1을 믹서에 곱게 간다.
3. 2와 채소 수프 스틱 1컵, 우유 1컵, 생크림 1/4컵을 냄비에 부어 데운다. 간은 소금 2/3작은술로 한다.
4. 장식용 사과를 작게 반달썰기하여 버터 1작은술에 볶다가 시나몬 가루를 약간 넣고 더 볶는다.
5. 3의 포타주를 그릇에 담고 4를 얹는다. 취향에 따라 구운 아몬드를 올리고 시나몬 가루를 약간 뿐린다.

오늘은 나도 뉴요커

맨하탄식 클램 차우더

클램 차우더는 미국 북동부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먹던 음식으로, 이민자들의 나라에 따라 다양한 버전이 있다. 대표적인 클램 차우더로는 뉴잉글랜드식의 크림 베이스가 떠오르지만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이민자의 영향을 받은 토마토 베이스의 맨하탄식도 있다. 한국 입맛에는 맨하탄식 클램 차우더가 개운하게 다가온다.

재료(3~4인분)

생바지락 400g, 베이컨(덩어리) 40g, 셀러리 1대, 당근 1/2개, 감자 2개, 양파 1개, 토마토 퓌레 1/2컵, 채소 수프 스틱 3컵, 올리브유, 소금, 후추

1. 바지락은 소금물에 담가 해감한다. 물 1/2컵과 바지락을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어 바지락 입이 벌어질 때까지 끓근하게 끓인다. 조각살과 국물을 분리하고, 겹대기에 붙어 있는 살은 발라낸다.
2. 베이컨, 셀러리, 당근, 감자는 1cm 크기로 깍둑썰기하고 양파는 굽게 다진다.
3. 냄비에 올리브유 2큰술을 둘러 달군 다음 베이컨, 양파 순으로 볶는다. 그리고 셀러리, 당근, 감자를 넣어 함께 볶는다.
4. 3에 1의 바지락 국물, 채소 수프 스틱 3컵, 토마토 퓌레 1/2컵을 넣고 볶은 채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다. 마지막에 조각살을 넣고 소금 2/3~1작은술, 후추로 간한다.
5. 완성한 클램 차우더를 그릇에 담고 취향에 따라 크래커를 곁들인다.



후다닥 만들어 호로록

토마토 달걀 수프

시간이 없을 때도 후다닥 만들 수 있는 간단 레시피.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사용하면 식감이 더 좋다. 물전분으로 부드러워진 국물이 따뜻함을 더 오래 유지해 준다.

재료(2~3인분)

토마토 1개, 셀러리 1/3대, 마늘(작은 것) 1쪽, 달걀 1개, 다진 고기 수프 스틱 2컵, 셀러드유, 소금, 물전분(전분 1큰술 + 물 1큰술)

1.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웨지 모양으로 썬다. 셀러리를 얇게 썰고, 마늘은 잘게 다진다. 달걀은 미리 풀어둔다.
2. 냄비에 셀러드유 1큰술을 둘러 달구고 1의 마늘, 셀러리를 볶다가 다진 고기 수프 스틱 2컵을 붓는다. 수프가 끓어오르면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고, 끓그러지기 시작하면 소금 1/2작은술로 간한다.
3. 2에 물전분을 넣고 걸쭉해지면 풀어둔 달걀을 흘려 넣어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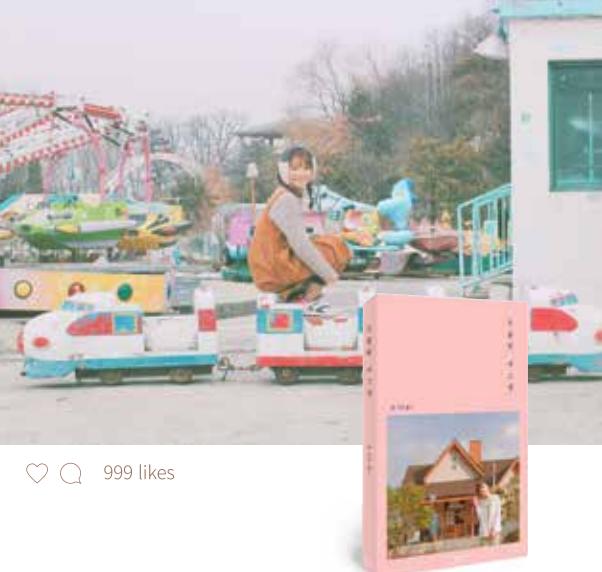


* 토마토 달걀 수프는 밥과 함께 먹어도 좋다. 특히 볶음밥과 잘 어울린다.

* 다진 고기 수프 스틱은 다진 닭고기와 다진 돼지고기로 만드는 담백한 맛의 육수다. 다진 닭고기만 넣으면 맛이 지나치게 연할 수 있으니 닭고기 분량의 20~30%의 돼지고기를 추가해 저민 생각, 대파와 함께 끓여 국물을 낸다. 국물을 우려낸 고기는 볶음밥이나 셀러드에 쓸 수 있다.

여행이라 좋고 혼자라서 좋다

 슬구 / 푸른향기



999 likes

우물 밖 여고생

#훈행 #셀카 달인 #돈 없어도 여행

 황안나 / 산티



999 likes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들어도 여행 #늦은 나이란 없다 #할머니도 혼자 간다

훈밥, 혼술에 이어 혼자 하는 여행인 '훈행'도 낯설지 않은 요즘이다. 내 여건에 따라 어디든 훌쩍 떠날 수 있기에 가장 자유롭고, 나를 벗하며 다니니 새삼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훈행이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는 이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도 훈행의 매력. 첫 출발은 어렵지만 한 번 떠나보면 안다. 낯선 곳에 훌로 도착했을 때의 두근거림이 자신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 그 설렘을 책으로 나눠준 이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로 여행을 시작해 보자.

 이주영 / 길벗



999 likes

나홀로 여행 컨설팅북

#불안한 훈행 #든든한 가이드 #한 권 클리어하면 전국일주

 김정훈 / 알에이치코리아



999 likes

교토일상산책

#훈행은 감성 여행 #훈행지 교토 #여행을 일상처럼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카메라와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산 18살 고등학생 슬구. 인생 첫 비행기를 혼자 탄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여행기는 이후 곳곳으로 이어진다. 제주도, 경상북도 군위, 경상북도 경주 도리마을 등 카메라와 삼각대를 동행으로 삼은 '에이틴 트래블러'의 여행은 일기 같은 책 「우물 밖 여고생」으로 남았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아껴가며 여행하는 그녀의 여행기에는 대단한 맛집이나 숨막히는 절경은 없다. 하지만 10대의 고민과 희망이 겨울 속 햇살처럼 빛난다. 틈틈이 여행하는 자신을 두고 '금수저'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듣기 싫었다는 저자는 나라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가정에서 자란 학생인 자신도 1년의 아르바이트 끝에 여행을 한다고, 삶에 여유가 있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기 때문에 삶이 여유로운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슴이 답답할 때 단돈 2천 원을 들고 대부분으로 떠나는 것도 여행이라고 말이다. 최근 저자는 동남아를 3달간 혼자 여행한 후 여행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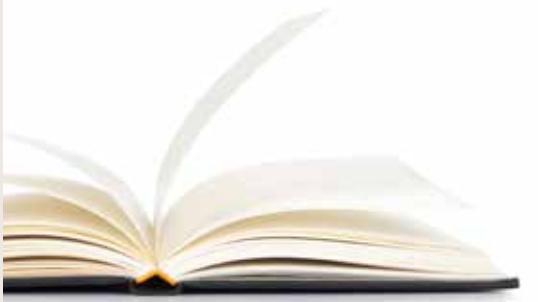
'혼자 먼 길 걸으며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살아갈 날도 생각해 보고 싶어' 걷기 시작한 할머니가 있다. 황안나 할머니다. 책을 펴낼 때의 나이는 65세. 저자는 혼자 2천 리 길을 23일 동안 걸으며 쉬고 싶으면 쉬고,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잤다. 자유로운 만큼 외로웠지만 덕분에 스스로와 정직하게 대면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교직 생활을 하며 번 돈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는 데 쓰느라 온갖 고생을 했던 20년 세월의 상처와 원망이 걸음걸임마다 투둑 투둑 떨어져 나갔다. 할머니는 혼자 걸으며 많이 울었고, 많이 감사했다. 황안나 할머니의 여행을 따라가면 마음 속을 함께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종단 이야기를 써줄로, 살아온 이야기를 날줄로 엮은 이 책은 국토 종단길에 오른 듯한 생생한 느낌과 함께 할머니의 실수담과 삶의 이야기가 웃음과 감동을 준다. 예순 다섯의 삶을 살아온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솔한 깨달음도 귀중한 선물이다. 무엇보다 삶이 버거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뭔가 계획한 바는 있지만 여리 핑계로 주저하는 이들에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다. 혼행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용기도 함께 말이다.

여고생과 할머니로부터 여행에 대한 '뿔뿌질'을 충분히 받았다면 이 책으로 '훈행 실습'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회원 수 20만 명의 네이버 카페 「나홀로 여행 가기 나만의 추억 만들기(나여주)」 카페 운영자가 10여 년 훈행의 노하우를 담은 책 「나홀로 여행 컨설팅북」이다. 이 책은 「나여주」 카페 회원들이 추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나홀로 여행지 30곳을 추천하며 여행지에서의 코스별 이동 방법과 소요 시간까지 명시, 최적의 여행 스케줄을 제시한다.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하고 혼자 묵는 숙소가 불안한 혼행 초보자에게 1인 메뉴가 있는 맛집과 직접 가보고 검증한 숙소를 소개하는가 하면, 혼자 하는 여행이 지루하지 않도록 여행지에서 해봐야 할 미션 까지 담아 놓아 마치 친한 친구가 옆에서 꼼꼼히 가이드하는 것처럼 든든하다. 「나여주」 카페에서 수집한 다양한 여행 팁과 노하우도 혼자 떠나는 마음을 설렘으로 꽉꽉 채워준다. 틈틈이 책을 읽어 둔다면 시간이 날 때 책 속 여행지 하나를 골라 훌쩍 떠날 수 있을 것이다.

홀로 하는 국내 여행에 익숙해졌다면 해외로 나가보자. 사실 혼행하기는 국내보다 국외가 마음의 부담이 적다. 국내에서 혼자인 여행객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이 머물곤 하지만 외국에서는 혼자나 단체나 모두 같은 여행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혼자 여행하기에 좋은 곳을 찾으면 가까운 일본, 그중에서도 교토를 꼽을 수 있겠다. 왠지 느려지는 걸음과 함께 마음의 속도도 느려져 자기 자신을 더 천천히 바라보게 하는 곳이 교토다. 일본인들에게 교토는 산책을 하러 가는 곳, 마음의 자연스러운 치유를 위해 수십 번씩 찾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한다. 혼자 여행하는 교토 여행을 위해서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 '올드 시티 교토를 탐닉하는 감성 매뉴얼'이라는 부제를 단 「교토 일상산책」은 천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낸 고즈넉한 곳부터 시끌벅적 사림 냄새 나는 곳까지 크고 작은 길을 모아 18개 코스로 구성했다. 소박한 일러스트 지도와 소요 시간을 일러둔 산책 코스, 지역 특징 소개와 맛집, 쇼핑 정보도 정갈하게 담겨 있다.

책 속 여행지

여행은 주로 낯선 곳으로의 도전이다. 낯설기 때문에 두려움과 기대, 설렘을 함께한다. 그중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든든한 준비밖에 없다. 각종 여행서적과 인터넷 서핑을 통해 낯선 곳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모으면 한결 마음이 든든해진다. 여행서적의 역할은 그뿐만이 아니다. 여행지를 소개하여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하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네 권의 책에서도 매력적인 여행지들이 독자를 끌어당긴다. 여기에 등장한 여행지들을 눈여겨보자.



1

2



3

4

1. 슬구의 셀카 배경 / 서울 용마랜드

용마랜드는 서울시 종로구의 망우산 중턱에 위치한 놀이공원이다. 폐장한 지 오래되었지만 놀이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빛 바랜 화려함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덕분에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자주 사용되었고 입소문이 퍼져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러 오는 곳이 되었다. 입장료도 일반 셀프 사진, 웨딩 촬영, 대관 촬영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전체 대관이 있는 날은 입장이 불가능하니 용마랜드 네이버 카페([cafe.naver.com/yongmaland](http://naver.com/yongmaland))에서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2. 황안나 할머니가 꼽은 가장 아름다운 길 / 충주호

황안나 할머니는 책 속에서 지금까지 걸은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길로 충주호 옆길을 꼽았다. 벚꽃이 가장 나중에 피는 곳이기도 해서 벚꽃 구경을 놓쳤다면 이곳을 찾아도 좋다고 한다. 어딜 가든 멈춰서는 곳마다 절경이라, 그 아름다움에 취해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걸었다는 충주호 옆길. 유람선을 타는 것보다 구비구비 길을 직접 걸으며 충주호를 본다면 호수와 하늘, 산과 나무를 더 오래, 더 깊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벚꽃도 아름답지만 단풍도 그에 못지 않게 멋지다 하니 봄과 가을이면 충주호를 떠올려 보자.

3. 나홀로 길 찾기도, 밥 먹기도, 잠자기도 좋은 / 남해

『나홀로 여행 컨설팅북』은 여행지마다 '나홀로 길 찾기, 밥 먹기, 잠자기'에 저자총평으로 별을 달아 두었다. 그중 남해는 길 찾기에 별이 4개, 밥 먹기 3개, 잠자기 3개 등 별을 골고루 받은 여행지다. 수도권에서는 가기 쉽지 않은 거리지만 그만큼 혼자 하는 여행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림 같은 풍경에 대한 감동도 커진다. 남해에서 꼭 해봐야 할 것은 독일 마을 카페에서 독일 맥주 마시기, 다행이마을에서 멸치쌈밥 맛보기, 마늘 향기 맡으며 타박타박 바래길 걸어보기 있다. 맑은 날, 보리암에서의 바다 조망도 추천한다.

4. 물과 함께 시간이 흐른다 / 난젠키

『교토 일상산책』의 저자가 절경 중의 절경으로 꼽은 곳은 교토 철학의 길 구역의 세 번째 코스인 난젠키(南禪寺)다. 철학의 길은 니시다 기타로라는 철학자가 즐겨 걸으며 사색을 했다는 길로, 작은 수로와 좁은 오솔길 사이로 아름다운 가로수가 가득하다. 난젠키는 철학의 길 옆에 위치한 사찰이다. 22미터의 거대한 산본(정문)에서 바라다보이는 난젠키 경내는 일본의 유명한 가부키의 한 장면에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 난젠키의 상징으로는 메이지 시대 때 만들어진 거대한 수로, 소스이바시도 있다.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 물소리가 난젠키 산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2018

ASSEMBLAGE of COLORS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한 〈NCTS 2018: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가 지난 11월 16일 DDP에서 열렸다.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는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에 따른 컬러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컬러 관련 전문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청중과 강연자가 생각을 교류하고 컬러와 함께 예술과 사회, 과학과 건축이 만나는 곳,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던 자리가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2018〉이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컬러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김정근 아나운서의 인사로 〈NCTS 2018〉이 시작되었다. 이어 화면에는 세계 곳곳을 훑는 스피디한 영상이 펼쳐졌다. 복잡한 도시와 거친 자연을 넘나들며 세상의 컬러를 보여주던 영상은 ‘Life is All Connected. We Cover All’이란 문구로 맺어지며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작 영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바로 첫 번째 강연이 시작되었다. 스위스 출신의 포토그래퍼이자 비주얼 디자이너인 파비앙 외프너의 ‘The Art of Science’다.

파비앙 외프너는 일상 속의 과학 현상을 초고속, 초근접 카메라로 촬영하는 작가다. BBC, CNN에 소개되었고 TED의 인기 강연자이기도 한 그는 물과 기름으로 마치 개기일식 같은 황홀한 이미지를 만드는가 하면 태양이 폭발하는 듯 파워풀한 사진을 찍기도 한다. 또, 금속을 얼리고 녹이고 굽어내며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컬러를 포착해 추상 예술 작품으로 완성한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실재하는 자연 속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주는 그는 직접 작품 제작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그는 “예술과 과학을 조합하고 싶다. 우리 속에 숨겨진 것을 눈으로 보면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작업에서 컬러에 대한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연단에 오른 초청 강연자는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공간 디자이너인 이코 밀리오레. 다수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는 “아티스트는 자신과 고객의 정체성, 다양성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컬러를 활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색을 볼 때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함께 볼 것을 조언했다. 이를 통해 컬러에 감성이 반영되며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다고 한다.

뒤이어 이광호 작가와 카츠야 카모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의 2부 강연이 이어졌다. 이광호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 올해의 예술가상〉을, 브라질의 디자인 & 아트 마켓에서 〈2017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일상의 노동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손으로 매듭짓는 단순한 작업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파비앙 외프너처럼 평범한

소재를 재발견해낸 그의 작업에서는 중첩된 재료로 깊이감이 달라지는 컬러들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초청 강연자인 카츠야 카모는 블랙과 화이트, 골드와 실버, 컬러풀의 세 가지 기준으로 자신의 작품 활동을 소개하여 가장 빠르게 변하는 패션계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이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보여주었다.

Life is All Connected

Fabian Oefner



Ico Migliore



이광호



Katsuya Kamo





과학과 사진, 건축과 디자인, 일상의 소재와 수작업, 화려한 패션과 헤어 스타일링 등 다양한 범주를 아우른 초청 강연은 하나님의 주제로 수렴된다. 바로 ‘아상블라주(ASSEMBLAGE)’다. 아상블라주는 ‘모으다, 집합, 집적’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설치작품을 만드는 조형 작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NCTS 2018>은 왜 아상블라주를 주제로 내세웠을까. NPCI의 현정오 수석 연구원은 ‘2018–19 NPCI CREATIVE INSPIRATION & COLOR’를 발표하며 사회와 인간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주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 우리는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곧 ‘신이 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된 인간은 무엇을 만들까요? 우리는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고 재구성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무작위로 병치되고 조합되며 흥미를 끌 것입니다. 아상블라주는 구성과 추상, 상상과 현실을 공존시키는 가장 창의적 방법입니다.” 현정오 수석 연구원은 곧 이어 아상블라주의 대표적 표현 방법과 이에 따른 제안 컬러를 차례로 선보였다. <NCTS 2018>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2018–19의 명확한 컬러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청중의 카메라

ASSEMB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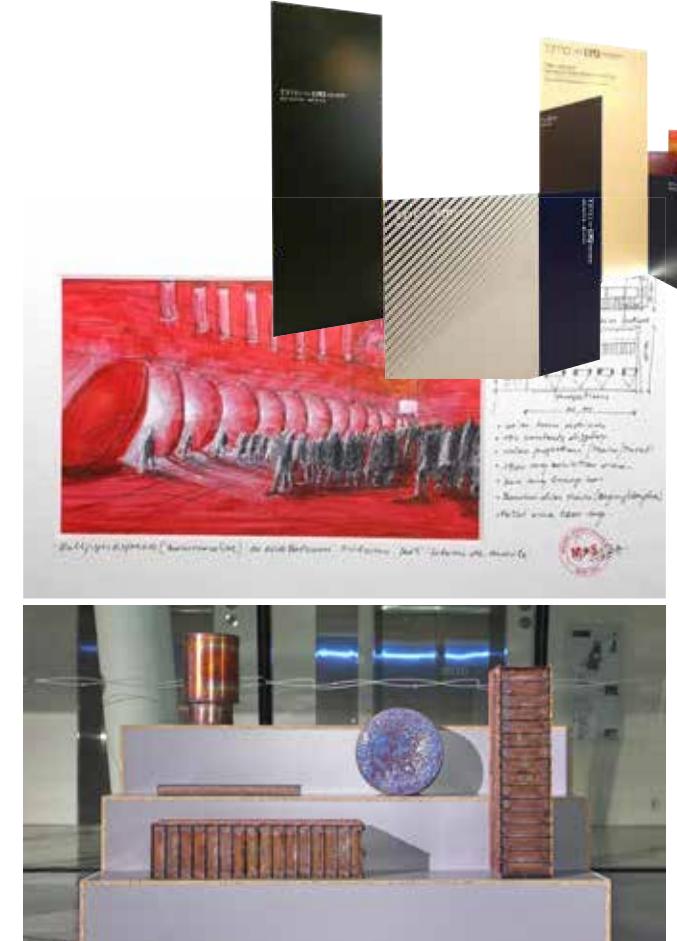
현정오



김승현

플레이들이 일제히 반짝였다. 카메라에 담긴 컬러들은 2018–19시즌을 향해 달리는 디자인계와 산업계에 선명한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이다. 현정오 수석 연구원이 선보인 48개의 컬러를 분석하여 김승현 연구원이 제시한 ‘2018–19 NPCI Proposal Color’도 마찬가지다. 무작위적인 조합 속에서도 오묘한 밸런스를 만드는 컬러들, 극단적으로 강렬해지는 레드와 그린, 블루, 이외에도 중의적이고 풍부한 컬러들은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비추고 그 빛을 미래로 반사해 주었다.

컬러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필터다. 우리는 컬러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컬러에 반영해 사회를 컬러로 물들인다. <NCTS 2018>은 2018–19에 어떤 컬러 필터가 끼워질지를 가장 먼저 확인시켜 준 행사였다.



행사장에는 이코 밀리오레의 스케치와 이광호 작가의 작품, 핀홀과 이상민 금속공예작가의 클리보레이션, 토모글라스와 NPCI의 클리보레이션 공간 등이 전시되었다. 청중은 행사 전후와 휴식시간을 이용해 작가와 대화를 나누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NOROO와 POW!WOW!

서울을 새로이 그리다

POW!WOW! X NOROO in Korea

NOROO 그룹은 2017년 9월, 글로벌 스트리트 아티스트 그룹인 파우와우(POW!WOW!)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POW!WOW! X NOROO in Korea>를 진행했다. 그간 페인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NOROO의 사업보국 정신에 전통과 예술의 가치를 더해 기획된 <POW!WOW! X NOROO in Korea>는 서울 거리 곳곳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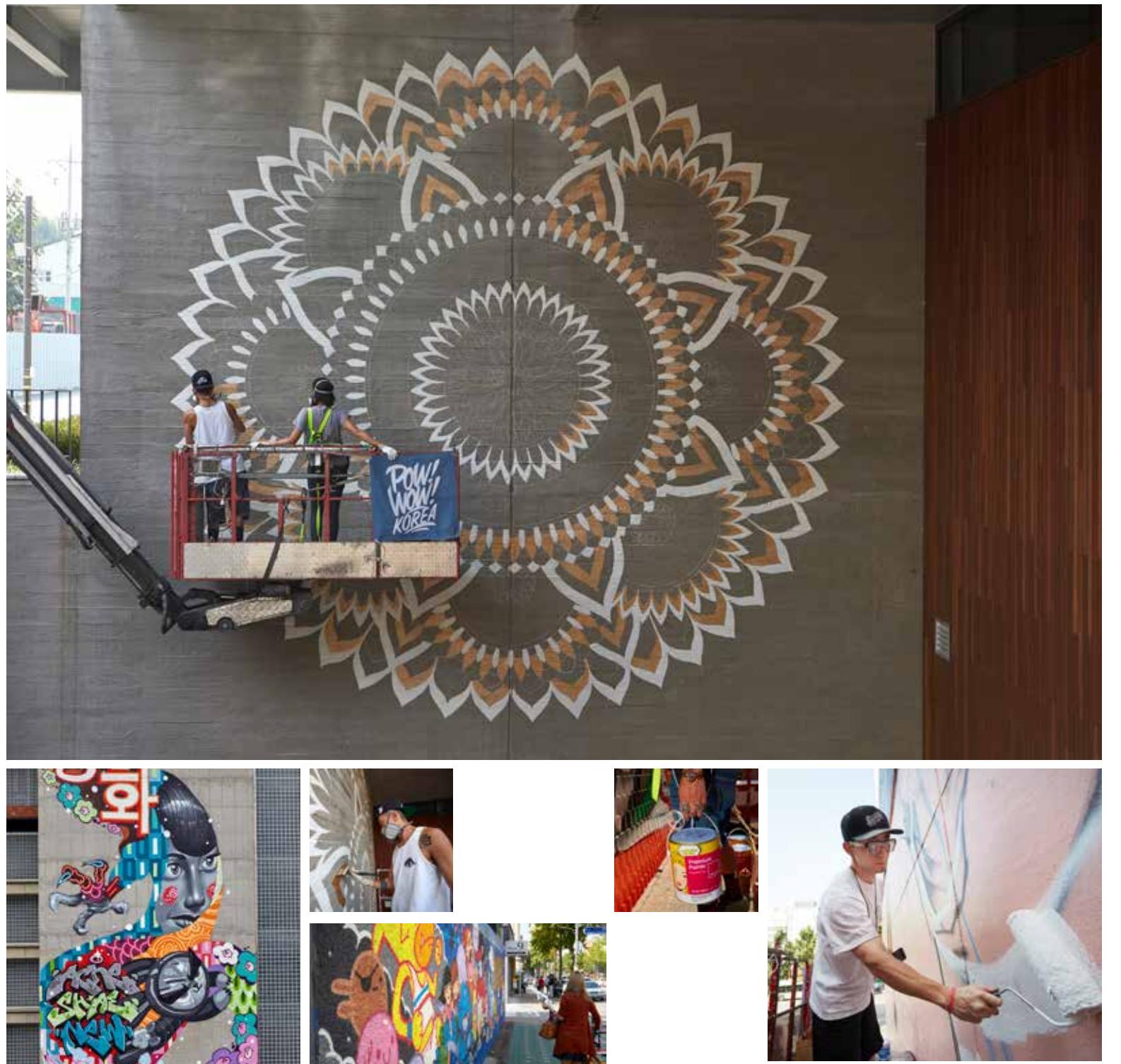


눈을 뜨고 페인팅의 힘을 믿어라!

우리는 간혹 낯선 것을 만나면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며 눈을 의심하곤 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겠다. 2017년 9월, 서울 곳곳에 거대한 벽화가 그려졌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건물에서 고마 도깨비가 기타를 치고 뜻밖의 장소에 만다라가 나타나는가 하면 한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가다듬는다. 눈을 의심할 것 없다. 새로운 페인팅이다. 이들 벽화는 파우와우와 NOROO가 함께한 <POW!WOW! X NOROO in Korea>의 놀라운 선물이다.

2010년 홍콩에서 아티스트들이 연 조촐한 전시회에서 시작한 파우와우는 세계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각국을 돌며 벽화를 그리는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로 확대되었다. 만화 속에서 얼굴에 주먹이 날아오는 소리인 'POW'와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 'WOW'를 조합해 만든 파우와우라는 이름은 새로운

예술을 알리고 삶을 놀랍게 하고자 하는 가치의 표현이다. 파우와우는 벽화를 통해 일상에 파격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으며 거리에 활기가 돌게 한다. 허핑턴포스트 지는 이를 작업에 대해 “거리의 예술은 화려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때로는 도발적이며 아주, 아주, 재미있다.”고 평한 바 있다. 그간 홍콩과 하와이, 일본, 대만 등에서 시행된 파우와우 프로젝트는 NOROO와의 협업을 통해 2017년 서울에 첫 선을 보였다. 서울 고유의 예술과 문화, 정서를 반영하는 작품으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민과 고객에 대한 기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NOROO의 사업보국 정신과 파우와우의 가치가 맞닿아 있기에 이번 행사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페인팅의 힘을 믿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페인팅을 선물하다. 예술로 공헌하다

“사람들은 매일 지나치는 벽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벽화가 생기면 달라지죠. 사진을 찍고 싶어지고, 벽화를 보러 오게 되면서 음식점과 상점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파우와우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며 세계의 다양한 작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서로 연결되는 것도 저희의 목표이죠.” 파우와우를 설립한 재스퍼 웹(Jasper Wong)은 그들의 역할과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연남동 보행로에 다양한 캐릭터가 함께 달리는 그림으로 쾌활한 분위기를 채웠다.

상도동 핸드피트 호텔의 외벽에는 용이 영원한 평화의 염원을 품고 하늘로 오른다.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에 작품이 영구전시된 바 있는 트리스탄 이턴(Tristan Eaton)과 독자적인 캐릭터 퍼수 토키(Persue bunny)로 유명한 퍼수(Persue)다. 트리스tan 이턴은 “보편적 가치인 평화가 한국에서는 더욱 중요할 것 같다.”며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다. LA에 한복 입은 흑인 여성의 벽화를 그려 CNN 등 유수 언론에 소개된 한국인 아티스트 로얄독(Rooyal Dog)도 파우와우에 참가했다. 그는 숙명여대 인근에 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을 그리

고 싶었다. 이곳에서 작품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정통 스트리트 아티스트 제이 플로우(Jay Flow), 식스코인(Sixcoin), 윤협(Yoonhyup), 제바(XEVA), 크립틱(CRYPTIK) 등 국내외 작가 10명이 합정동과 홍대 앞, 문래초등학교, 서울 새활용 플라자 등에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서울세계불꽃축제(SIFF)에서 피날레 행사로 <아티스트 라이브 페인팅>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앤디 송(Andy Song) 파우와우 코리아 지사장은 “파우와우는 예술가들에게 완전한 창조의 자유를 제공하는 축제”라며 “NOROO 그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파우와우 최초의 한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NOROO는 그동안 페인팅을 통해 많은 사회공헌을 해왔다. 어두운 곳을 밝게 꾸며 범죄예방 환경 개선을 하고 낡은 곳을 새롭게 페인팅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POW!WOW! × NOROO in Korea>는 예술가들과 함께 사회공헌의 폭을 한층 넓혔다. 눈을 깜박이며 다시 쳐다보게 하는 의외성, 그로 인해 리프레쉬되는 시각과 활력을 서울 시민들에게 선물한 것이다.





기술을 배우다 우리를 느끼다

(주)노루비케미칼 해외직원연수 프로그램

(주)노루비케미칼의 오후 1시, 본사 건물 휴게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온다. “맛.. 있어요.”, “몇.. 시입니까” 한 마디 씩 천천히 힘주어 말하는 이들은 수레시 씨와 사라바난 씨다. 점심시간 후 한국 직원과 함께 매일 한 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들은 (주)노루비케미칼의 해외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인도 첸나이 법인에서 온 NOROO인이다.

N
O
R
O
O
I
N
S
U
R
E
C
I
V
I
C
A
L
W
O
R
K
E
R
S
P
R
O
G
R
A
M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안나 대학교에서 자동차를 공부하고 7년간 플라스틱 도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노루비케미칼 인도 법인에 입사한 수레시라고 합니다.” 크고 검은 눈이 반짝이는 수레시 씨는 영어로 자기 소개를 했다. 미소가 밝은 사라바난 씨도 자기 소개를 이었다. “저도 안나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경력직으로 지난 해에 입사했습니다.” 그들 옆에 앉은 (주)노루비케미칼 황상덕 영업부장은 안나 대학교가 인도 첸나이 최고의 명문대학교라고 설명을 거들었다.

수레시 씨와 사라바난 씨는 (주)노루비케미칼의 해외 직원 연수 프로그램 첫 장기 연수생으로 2017년 5월부터 각각 6개월, 1년의 연수를 받았다.

2006년에 중국 북경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6개 나라에 7개의 법인을 세워온 (주)노루비케미칼은 현지 법인의 기술력을 키우는 동시에 현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한 직원을 본사로 초청하는 해외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2013년도부터 실행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을 첫 실행할 당시에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우수직원을 초대해 1주일간 본사를 체험하는 코스도 있었고, 현지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4주에서 8주 정도 진행했지요. 그런데 그 효과가 매우 좋아 현지인을 리드하며 법인의 현지화를 더 빠르게 이끌 인재를 선발하여 기술부문 중심으로 장기간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조성갑 부장은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현지에서 기술을 발전시키며 동료들에게도 이를 전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외적인 측면에서도 본사 연수는 의미를 지닙니다. 현지에서 배우는 기술은 실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본사에서는 여러 팀과 업무 구조를 익히며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체득하게 되죠. 후에 훌륭한 중간 관리자가 되도록 돋는 코스인 셈입니다.”

실제로 수레시와 사라바난 씨를 위한 커리큘럼은 생산팀과 품질관리팀, 외장도료기술팀, 내장도료기술팀 등 생산 및 기술부문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짜여 있다. 두 연수생은 업무의 스킬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고 말하며 뿌듯함과 만족을 표했다.



수레시 씨와 사라바난 씨는
(주)노루비케미칼의 해외 직원 연수 프로그램 첫 장기 연수생으로
2017년 5월부터 각각 6개월, 1년의 연수를 받았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수레시와 사라바난 씨가 배운 것은 기술과 업무 능력뿐만이 아니었다. 함께 식당밥을 먹고, 기숙사로 제공된 아파트에 살면서 한국 문화를 배웠다. 주말에는 본사 직원들과 야외 활동을 하며 한국을 더 깊이 체험했다. 그들과 함께 본사 직원들도 배움의 자극을 얻었다. 연수생에게 매일 한 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영지원팀의 한선용 주임은 거꾸로 인도 문화도 듣고, 인도 말도 배워서 즐거웠다고 말한다. 연수생들을 통해 본사 직원들은 (주)노루비케미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실감하고 해외 법인에 대한 연대감도 더 강해진다. 이는 고국으로 돌아간 연수생들도 함께 느끼는 바다. 때문에 (주)노루비케미칼은 앞으로도 연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주)노루비케미칼 현지 법인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어 우수자를 초대하는 등 한국어 학습을 유도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 많은 현지 직원이 책임자가 되고, 기술을 자립화해 법인의 힘을 키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외장도료기술팀 김영우 부장의 설명이다.

조성갑 부장과 한선용 주임, 황상덕 부장과 김영우 부장, 그리고 수레시와 사라바난 씨.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의 이야기는 연대와 지지의 큰 힘을 느끼게 한다.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NOROO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노루비케미칼의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딸기처럼 새콤하게 크림처럼 달콤하게

(주)노루알앤씨 김홍규 가족의 새콤달콤 딸기 타르트

겨울은 달콤함이 어울리는 계절이다. 유자차, 모과차, 코코아의 단맛은 겨울에 더 깊어진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놓이는 예쁜 케이크의 부드러움과 스윗함, 찬 바람 속에 줄을 서 기다려 먹는 호떡의 뜨거운 설탕시럽 맛은 또 어떤가. 잔뜩 움츠러드는 몸을 사르르 녹여주는 달콤함을 만들기 위해 (주)노루알앤씨의 김홍규 가족이 딸기 타르트에 도전했다.

다른 듯 닮은 우리는 가족

딸기 타르트 체험이 준비된 강남의 보니보니 베이킹 스튜디오는 겨울을 맞아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따스하게 덥혀 둔 내부에는 벌써부터 달콤한 향기가 감도는 듯했다.

사보에서 가족 체험 행사로 딸기 타르트를 만든다는 소식에 (주)노루알앤씨 영업팀의 김홍규 차장은 10살인 딸 예지가 바로 떠올랐다고 한다. “예지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마침 체험 다음날이 예지 할아버지 생신이시라 예지가 직접 만들어 선물로 드리면 참 좋아하시겠다고 생각했죠.” 딸을 잘 아는 아빠의 예측대로 예지는 베이킹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재료가 놓인 작업대에 다가서며 동그란 눈을 더욱 반짝였다. “예지는 문화센터나 미술학원에서 베이킹을 여러 번 해 봤어요. 아마 저보다 더 잘 할걸요?” 엄마인 강수혜 씨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엄마의 말대로 자신만만한 표정의 예지다.





“자, 오늘은 타르트를 만들 겡니다. 타르트는 내용물과 토핑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지는데요, 오늘은 크림치즈 위에 딸기를 올린 딸기 타르트입니다.” 보니보니 베이킹 스튜디오 파티쉐 피아름 씨의 안내에 따라 가족들은 각각 계량을 시작했다. 저울의 0점을 조정해 가며 버터 위에 박력분, 소금, 설탕, 아몬드 가루와 계란을 신중하게 넣고 비닐장갑을 낀 뒤 반죽을 시작한 가족. 1g의 오차도 없이 계량했는데도 유독 아빠인 김홍규 차장의 반죽이 묽다. “손이 따뜻하신가 봐요. 손의 온도에 따라 반죽의 묽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베이킹에서는 따뜻한 손을 태양의 손이라고도 하죠.” 자세히 보니 같은 계량인데도 가족들의 반죽은 조금씩 다르다. 서로의 반죽을 보며 웃는 가족의 얼굴이 모두 닮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은 것처럼 말이다.



달콤함이 가득, 행복도 가득

“아빠가 잘 해주시는 음식요? 음… 라면이랑 볶음밥이요!” 태양의 손을 가진 아빠가 잘하는 요리가 무엇일까 물어보니 예지가 입맛을 다시며 대답한다. 항공사에 근무하는 엄마는 주말 근무가 잦아 아빠가 예지를 챙기는 날이 많다.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나들이도 자주 나가서 월미도, 야구장 등을 아빠와 함께 가다보니 예지도 야구 팬이 되었다. 야구 시즌이 끝나서 좀 섭섭하다는 예지는 삼성 팬이다.

가족과 함께했던 여행 이야기를 하며 크림치즈 필링을 만들고 나자 이제 타르트 지를 틀에 넣을 차례다. 휴지시켜 둔 반죽을 꺼내 밀대로 미는 예지의 손놀림이 아주 재빠르다. 또래보다 훌쩍 큰 키에 손과 발도 커서 각종 운동에 능하다는 예지의 과감성이 베이킹에서도 드러난다. “파님이 아주 능숙하게 잘 하네요.”란 선생님의 칭찬에 아빠, 엄마의 어깨가 으쓱해졌다. 틀에 타르트 지를 넣고 크림치즈 필링을 채운 뒤 오븐에 굽는 동안 타르트 위에 올릴 크림치즈 크림을 만든다. 크림치즈 크림은 가장 위에 얹을 딸기를 고정시켜 주는, 페인트로 치면 ‘수지’의 역할을 하며 달콤한 맛을 업그레이드한다. 크림치즈와 설탕, 생크림이 들어가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달달하다.

어느새 오븐에서 꺼내 식힌 치즈 타르트에 크림치즈 크림을 올리고, 딸기를 얹는 마지막 순서다. 풍성하게 준비된 딸기를 자르고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리는 모두의 얼굴이 더없이 진지하다. 엄마는 세심하게, 아빠는 꼼꼼하게, 그리고 예지는 푸짐하게! “저는요, 양으로 승부할래요!” “할아버지가 무



보니보니 베이킹 스튜디오

간단한 원데이 클래스부터 전문과 심화 과정까지 베이킹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소수 인원이 계량부터 데코까지 선생님의 꼼꼼한 지도에 따라 스스로 해 볼 수 있어 초보도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 blog.naver.com/bonnybonnycake

척 좋아하시겠다” “엄마는 아름답게!” 도란도란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며 드디어 각자의 타르트를 완성!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치즈 위에 새콤한 딸기가 화사하게 장식된 딸기 타르트를 나란히 들고 선 가족의 표정은 스튜디오를 채운 맛있는 냄새만큼이나 행복으로 가득하다. 소복이 쌓인 딸기가 마치 하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건 가족이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만들어서일 것이다.



양양에는 무지개 요정이 산다

양양 두리상사

2017년,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뚫렸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긴 터널들이 많은데 각 터널마다 조명으로 푸른 하늘과 무지개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볼거리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터널에서 무지개를 금세 지나쳐 아쉽다면, 양양은 그 아쉬움을 달랠 줄 것이다. 양양에 사는 요정이 곳곳에 지지 않는 무지개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컬러의 힘, 학교를 바꾸다

양양의 무지개 요정은 바로 양양 두리상사의 김재식 사장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페인트가 바랜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직접 페인트를 시공하여 아이들에게 예쁜 무지개 학교를 선물해 주었던 그는 지난 2013년 NOROO 사보 여름호에 소개된 바 있다. 그때 회룡초등학교를 ‘지지 않는 무지개’로 만들었던 그의 선행은 4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공수전분교, 송포초등학교와 상평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현북초등학교, 운산분교 등 양양의 많은 학교를 크고 작은 무지개로 바꾸고 있다.

“양양처럼 뛰어난 자연 풍광 속에 있는 학교가 허름해지고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컬러의 힘을 빌리면 학교와 학생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페인팅이었고요.”

이런 바람으로 그는 공수전분교를 색색으로 페인팅했다. 낡고 색이 바래어 폐교처럼 보이던 학교가 새 단장을 하자 전학생이 늘었고 학생 수가 세 배로 증가했다. 그 소식에 다른 학교들도 컬러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송포초등학교 최인규 교

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교육청이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시키거나 이전시키면서 이 학교 역시 폐교 권고 대상이 되자 교장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페인팅을 선택했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도 황폐해진다. 학교를 살아야 마을도 살아난다.”는 그의 간절한 요청에 김재식 사장은 마음을 보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냈다. 학생들은 산뜻해진 학교로의 등교를 즐거워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희망이 생기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다. 동문들도 다시 학교에 관심을 모아 장학 제도와 잔디조성을 계획했다. 지역사회도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동참했다. 현북초등학교 역시 교장이 페인팅을 강력히 추진하고 김재식 사장이 도움으로써 개성과 활기가 넘치는 ‘컬러풀’ 학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지역 MBC는 <작은 학교 살리기 콘서트>를 이 학교에서 열어 작고 아름다운 학교의 가치를 알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노루페인트도 뜻을 함께해 최근 운산분교의 페인팅을 도왔다. 컬러로 심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결실들을 넣고 있는 것이다.



공수전분교



상평초등학교



송포초등학교



운산분교



현북초등학교



컬러의 아름다움, 시장을 만들다

김재식 사장의 이러한 선행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페인트를 통해 컬러의 힘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는 본인이 팬톤페인트를 통해 컬러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기에 고객들과도 팬톤페인트의 아름다움과 컬러의 힘을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 선명한 컬러들의 무지개 학교는 그 좋은 예가 되어 주어서 지금은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부러 두리상사를 찾아 페인트를 사간다. 양양의 인구 수가 강릉의 1/10 정도임에도 두리상사가 강릉 1위의 페인트 대리점에 버금가는 매출 액을 낼 수 있는 까닭이 여기 있다. “컬러 덕분이죠. 그냥 시공만 했다면 시장을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페인팅에 컬러 개념을 세우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며 모든 공을 컬러로 돌리는 김재식 사장이지만 그의 선한 마음이 시장을 넓히는 데 크게 역할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3년 여름의 NOROO 사보에서 김재식 사장은 ‘컬러풀한 양양’을 꿈꾼 바 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 그리고 (주)노루페인트의 생생한 컬러를 통해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NOROO 그룹 창립 72주년 기념행사 실시



중국의 중산대교화공그룹과 MOU 체결



2018 NOROO 그룹 시무식 실시



안산에코스쿨 구현 위해 학교 옥상 쿨루프 사업 공동 추진

(주)노루홀딩스

NOROO 그룹 창립 72주년 기념행사 실시

2017년 10월 31일, NOROO 그룹은 창립 72주년을 맞아 NOROO 복지관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한영재 회장은 기념행사에서 “NOROO는 7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화학과 농생명 사업을 아우르며 새로운 창조와 준비된 도전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 NOROO의 패기와 열정, 박력, 책임 정신이 이를 가능하게 해 준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에도 화학 사업에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임과 동시에 원가경쟁력을 확충해 내실 경영을 추구하고, 농생명 사업에서는 신규 해외 프로젝트와 종자 사업을 본격화해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NOROO 인들의 폭넓은 사고와 적극적 전략 구사를 당부했다. 기념행사에서는 장기근속자 포상과 활영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화환과 함께 사랑의 쌀을 기증받아 지역 사회를 위해 기부하였다.

중국의 중산대교화공그룹과 MOU 체결

(주)노루홀딩스는 2017년 11월 29일 인양공장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중국 중산대교화공그룹과 업무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로 양사는 자동차 수성도료에 대한 기술 협력, 컬러 개발과 제조 생산의 기술 교류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협약했다. 중산대교화공그룹 류신 총경리는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 자동차의 생산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친환경도료의 수요가 증가하여 수성도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이는 중국 로컬 자동차 도료 회사가 발전하는 데 최적의 기회”라고 밝혔다. NOROO 그룹 한영재 회장은 “NOROO 중국 사업은 중산대교를 통하여 중국 내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사 협력을 위하여 먼저 작은 성공사례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 NOROO 그룹 시무식 실시

2018년 1월 2일, NOROO 그룹은 안양 본사 복지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로운 한 해의 결의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NOROO 그룹 한영재 회장은 2017년은 화학 부문과 농생명 부문에서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은 한 해였다고 감사의 말을 전

하며 2018년의 그룹 지표를 “노마드 NOROO! 시장선도로 기회를!”로 제정하였다. 이는 여전히 불확실한 한국 경제의 환경 속에서 청년 노루의 패기와 열정, 책임정신 외에도 폭넓은 사고와 역동성이 발휘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종전의 경영방식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함으로써 지속성장을 도모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한영재 회장은 또한 그룹 차원에서도 미래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시무식에서는 임원 인사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임명장이 각각 수여되었다.

(주)노루페인트

안산에코스쿨 구현 위해 학교 옥상 쿨루프 사업 공동 추진

(주)노루페인트는 안산시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산에코스쿨을 구현하기 위해 옥상 쿨루프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2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안산환경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옥상 쿨루프는 태양광선 중 적외선을 반사하는 차열 페인트를 옥상에 시

공하여 표면의 열이 내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단열 시스템이다. 이는 건물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 냉방에 드는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도시의 열섬 현상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옥상 쿨루프 사업 학교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및 홍보를, 안산환경재단은 사업 대상 학교 선정 및 시 공 지원을 맡으며 (주)노루페인트는 차열 페인트 재료를 제공하고 친환경 기술 지도와 사업 효과 분석으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산환경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형 에코스쿨을 구현하여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며 “도시 열섬 현상 완화는 2030 숲의 도시 안산 조성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사회공헌활동

(주)노루페인트는 지난 11월 25일, 김장철을 맞아 (노루페인트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회공헌활동을 안양 복지관에서 펼쳤다. 나눔과 상생으로 이웃과 따뜻한 동행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주)노루페인트는 소외계층의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 나눔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날의 김장 김치는 지난해와 같이 독거노인과 보훈 가족 등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사랑의 김장 나눔 사회공헌활동



팬톤이 선정한 2018년 컬러, 울트라 바이올렛



(주)노루비케미칼,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더기반 안성연구단지 준공식 실시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게 직접 배달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노루페인트 최경수 부장은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을 지속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노루페인트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가를 통해 매년 연탄 배달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팬톤이 선정한 2018년 컬러, 울트라 바이올렛

글로벌 색채 전문 기업 '팬톤(PANTONE)'이 2018년의 색으로 '울트라 바이올렛(Ultra Violet, PANTONE 18-3838)'을 선정했다. '울트라 바이올렛'은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색으로, 무궁무진한 밤 하늘을 떠올리게 하며 가능성의 상징이자 현 시대를 넘어서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색이다.

팬톤 컬러 연구소의 리트리스 아이즈만은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며 “푸른빛을 바탕으로 하는 ‘울트라 바이올렛’은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지각 능력과 잠재력을 끌어올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에너지 넘치는 보랏빛은 오랜 기간 동안 반(反)문화, 비관습성, 예술적

인 재능을 상징해온만큼 상상력을 자극하고 보다 창조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로리 프레스만 팬톤 컬러 연구소 회장은 “올해의 컬러는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시대의 니즈를 반영한다”며 “전세계 사람들이 컬러에 열광하고 색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와 의미를 깨닫게 됨에 따라 디자이너와 브랜드는 색에서 영감을 얻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노루비케미칼

(주)노루비케미칼,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주)노루비케미칼이 12월 5일, 제 54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무역협회로부터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주)노루비케미칼의 신준 대표이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으며 이석상무는 한국무역협회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

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지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5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함에 따라 2012년부터는 12월 5일로 변경하여 올해로 54돌을 맞이하였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무역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무역 유공자,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 2천 여 명이 참석하여 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우리나라 3년만인 2017년도 한해 동안 무역 1조 달러에 재진입하였으며 수출 순위는 세계 6위로 지난해에 비해 2단계 상승했다. (주)노루비케미칼과 함께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으로는 (주)현대글로벌모터스, (주)카카오게임즈 등이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더기반 안성연구단지 준공식 실시

2017년 10월 25일, 더기반은 안성연구단지 준공식을 갖고 글로벌 종자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안성연구단지는 2016년 6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173,100m²(53,000평) 부지에

KOC(종자처리시설, 품질 검사, 종자 보관), KRD(생명공학연구 및 육종연구소), 연구부지(연구하우스 53개 동 및 노지 재배지) 규모로 완공됐으며, 2차적으로 연구하우스 153개 동이 조성될 예정이다. 준공식을 통해 최규설 대표이사는 “더기반은 양적, 질적인 기술 성장을 통해 R&D의 가치를 높이고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OROO 그룹 한영재 회장은 축사로, 농림부장관은 축전을 통해 더기반의 준공을 축하하였다. 국립종자원의 오병석 원장 또한 축사에서 농생명산업의 중요성을 말하며 더기반의 역할에 기대를 밝혔다. 준공식은 더기반 안성연구단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안성시 국회의원, 유관기관, 학계, 언론사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공로상, 연구단지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안성연구단지 조성으로 더기반은 최첨단 R&D를 통해 미래의 농생명 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찬 바람 속 피부 지키기

겨울이면 피부 고민이 깊어진다.

찬 바람과 건조한 공기 속에서 피부는 까칠해지다 못해 허옇게 일어나서 간지럽고 따갑기까지 하다.
오일과 로션, 크림으로 중무장해도 보호기간은 손을 씻거나 샤워하기까지의 단시간일 뿐.
어떻게 하면 겨울철 피부를 좀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상처 나기 쉬운 겨울철 피부의 보호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난방은 NO!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난방 온도를 높이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서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실내온도를 높일 땐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뺨래를 넣어 습도 또한 높여주어야 한다.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1°C, 실내습도는 40% 정도로 유지하자. 적어도 2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목욕은 가볍게

겨울이면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녹이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피부는 괴로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하므로 겨울철에는 37~38 °C의 물에서 15분 안에 목욕을 마치는 것이 좋다. 때를 밀거나 샤워젤, 비누 등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부의 각질층과 지방을 억지로 벗겨내는 것과 같으니 가능한 최소로 하거나 세정제의 경우 저자극성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목욕 전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 수분 보충에 좋으며 피부의 물기를 닦을 때는 문지르기보다 두드리듯 닦아야 자극이 덜하다. 목욕 후에 바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각질층이 수분을 오래도록 머금게 해주자. 목욕은 너무 자주 하지 않되, 보습제는 목욕 후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발라주는 게 좋다.

자주 마시고, 천천히 바르고

목욕과 보습제는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해주지만 수분 증발의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 속도는 느리지만 몸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다. 커피나 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는 수분을 오히려 빼내므로 피부에 좋지 않으며, 알콜 역시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절주해야 한다. 물을 하루에 8잔 마시고 피부에 보습제를 바를 땐 부위당 2~3분의 시간을 들여 충분히 흡수시키자. 또한 피부와 직접 닿는 옷은 정전기를 일으키는 소재를 피해 자극을 줄일 수 있다.



01.

도시 재생 프로젝트 <POW!WOW! X NOROO in Korea>의 서울 문래 초등학교 현장입니다. 아찔한 높이에서 작업하는 SIX COIN 작가의 담대함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쾌한 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02.

딸기 타르트의 대미인 딸기 장식에 집중하는 엄마와 딸은 얼굴도 닮았지만 표정도 닮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만들어낸 두 사람의 딸기 타르트는 아주아주 예뻤답니다!



03.

(주)노루비케미칼 본사에서 연수 중인 인도 첸나이 법인의 수레시씨와 사라반단 씨가 조성갑 부장과 나란히 섰습니다. 살아온 곳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NOROO라는 이름으로 하나되는 우리는 NOROO입니다.

